

# 빌 마운스 박사, 산상 설교, 강의 3, 행복, 3부

© 2024 Bill Mounce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산상 설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빌 마운트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3, 행복의 말씀, 3부입니다.

좋아요, 글썄요, 환영합니다. 우리는 행복의 말씀과 소금과 빛을 마무리하고 시간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보겠습니다.

어때요? 알겠어요. 프랭크는 말하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내가 언제 끝냈는지 묻고, 나는 그에게 말할 필요가 없으므로, 우리가 끝나면 끝낼 거예요.

그것이 어디인지 보세요. 좋아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임이요.

좋아. 난 당신이 그저 카리스마를 부리고 아침하는 줄 알았어. 카리스마를 부리지 않아도 돼.

좋아요. 오, 알았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항상 제가 타코마에서 가르치는 학교가 대부분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고 생각했고, 카리스마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기도받는 것은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처음 일어났을 때, 그들은 너무 세계 나를 압박해서 숨도 못 쉬었지만, 그들은 그저 그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그것이 중국의 카리스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들은

기도가 무언가를 한다고 믿나요? 그리고 첫째, 그것은 중국식이므로 중국식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항상 화가 난 것처럼 들리는 걸 알아? 알아차린 적 있어? 그게 언어의 억양 체계야. 그러니까, 제 성은 중국어로 멩이 아니라 멩이예요. 멩이라고 하면, 아니, 그건 단어가 아니야.

멩. 좋아요. 하지만 어쨌든,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은 정말 기도합니다.

재밌어요. 즐거웠어요. 단어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알았어요. 행복 번호 5,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초점은 여기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로 약간 바뀌기 시작하지만, 다음 축복은 다소 개인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전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비는 축복 받았습니 다 .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 하나죠? 자비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다른 세계 종교에서는 미덕으로 여기는 자질 중 하나입니다. 자비는 많은 종교에서 큰 문제가 아닙니다.

자비란 무엇인가? 자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민을 베푸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자비와 은혜를 혼동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은혜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연민입니다.

자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연민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자비에 대한 성경적 이해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연민의 마음, 자비의 태도, 그리고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의 자비의 상태가 그를 움직여 행동하게 하고, 그래서 그는 우리를 구원합니다. 누군가는 발로 자비를 베푸는 자비를 찾고 싶어합니다. 저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자비는 무언가를 하는 연민입니다. 그냥 앉아서, 오, 알다시피, 나는 자비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당신은, 나는 자비롭다고 말하죠.

자비를 느낀다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무언가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비는 발로 자비를 베푸는 것, 궁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인사 외에 다른 것을 살펴보면, 성경에서 자비에 대한 논의의 대부분은 실제로 무언가를 하는 이 자비의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좋아, 그럼 발로 하는 연민. Quarles에게서 인용문을 받았는데, 이 Quarles에 대해 꽤 좋다고 생각했어요. 작업 중이에요.

저는 62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글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참을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떠맡고, 그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기꺼이 도와주고, 그들의 시련에 동참하고, 마치 그들의 상황에 바로 들어가 그들이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것은 자비, 발로 표현한 연민에 대한 좋은 설명이었습니다. 물론, 자비에 대한 정말 강력한 성경적 모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긍정적인 모델일 것입니다.

그는 다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에 대해 뭔가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예는 무자비한 하인, 수십억 달러를 용서해 주고 돌아서서 아주 사소한 빚을 용서하지 않는 하인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알다시피, 내가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까 당신도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비의 가장 중요한 긍정적, 부정적 사례, 특히 자비와 이 축복에 대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우리가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점입니다.

자비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것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자비는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으로, 당신을 움직여 무언가를 하게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깐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분명 황금 사슬이겠죠? 그냥 오늘 자비로운 사람이 될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안 돼요. 그냥 또 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결코 연민을 가질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사슬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타락에서 끝까지 움직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비는 사람들을 그들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저는 그것이 자비에 대한 도움이 되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자비는 사람들을 그들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당신의 삶에 불규칙한 사람들이 있나요? 네, 네, 알겠어요. 제 삶에는 저를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가질 수 있다는 걸 몰랐던 열정으로 저를 싫어해요.

그냥 나를 싫어해요. 그리고 저는 이 사람과 관계를 맺는 법과 자비를 베푸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다른 모든 감정이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요.

보복, 글썄요, 제가 옳고 당신이 틀렸어요. 제 말은, 그건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사실 제게는 두 가지 열쇠가 있었어요.

그 중 하나는, 제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게만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사람을 그 자체로가 아닌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신의 형상이에요. 좋은 자질이 많아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게 도움이 돼요.

또 다른 것은, 그것과 관련이 있는데, 불규칙한 사람의 삶에서 죄를 보는 것입니다. 죄를 이질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어디서 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았았다. 톰 슈라이너는 내 아주 친한 친구다. 그는 Southern에서 가르치고 모든 신약 신학을 쓴다. 대부분 법에 관한 책이다. 나는 그에게 법률주의에 대해 한 번 이야기했는데,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화의 전반적인 맥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락과 죄,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그 말을 통해 얻은 것은 죄는 당신 몸 속의 이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죄를 그저, 제가 죄를 지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죄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저를 죄짓게 하려는 이질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것이 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죄라고 다시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죄는 이질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은 힘입니다. 그것은 권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죄짓게 만들고 싶어합니다.

전혀 수동적이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구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제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겪는 정신적 체조는, 그들의 삶에 죄의 힘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겪을 때, 때로는 효과가 있고, 때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을 때는 증오와 분노 등을 넘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죄가 그들의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방법에 관해 제가 발견한 것은 운동이 정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운동은 오래된 속담입니다. 글썄요, 하지만 신의 은혜를 위해서라면, 나도 가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영적 타락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애도하고 신의 의로움을 갈구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켰을 때, 우리 삶에서 불규칙한 사람들을 볼 때, 알다시피, 나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박사학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인 것이다.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나인 것이 아니다.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죄의 완전한 결과를 영원히 저주받을 수 있도록 겪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나인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고, 그게 없었다면 내가 지금의 내가 아니었을 거라는 걸 깨닫고, 더 쉽게 만들어 주죠. 당연히 자동적인 건 아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게 더 쉬워지고, 죄의 권세로 인해 그들이 있는 그대로와 죄가 처리된다면 그들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살 때보다 지금 더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용적인 것들을 얻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비는 정말 a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우, 매우 중요한 상호성 원칙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약간의 실제적 적용으로 길을 닦고 싶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자비를 베푸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정신적 체조가 있나요? 저는 삶의 상황에서 친절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거의 반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좋은 지적입니다. 당신과 비슷한, 비슷한 삶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당신은 자비를 경험했고 그것은 큰 효과를 가져왔고, 그것은 당신을 같은 일을 하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게 당신이 말하는 거야? 응,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나는 철학 동아리를 운영해. 교회는 매년 장학금을 받고, 어떤 아이들은 그 동아리에 가서 내 급여의 일부를 그들에게 지불하게 해. 응.

그리고 제 교회, 다른 교회 지도자들이, 왜 이걸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라고 할 때. 네. 저는, 글썄요, 그건 그냥 정신적인 경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제 말은, 자비가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글썄요, 적을 사랑하는 건 아마 가장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적을 사랑하는 형태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의 모든 게 보복하고 싶어하고, 우리의 중요성, 중요성, 옳음을 주장하고 싶어하기 때문이죠.

네, 네. 노숙자였다가 노숙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니, 그들은 돈을 주는 게 최악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반대의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죄송합니다, 당신의 이름표를 붙이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당신의 이름을 모릅니다.

짐. 그리고, 이 방에는 J가 너무 많아요. 짐, 존.

알았어요. 지미 제임스. 당신이 말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아내가 차에서 내려서 그들에게 돈을 주곤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하는 거야?”라고 묻습니다. 아내는 “그럴 것 같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음, 영에 대한 당신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4살 학생이었던 제 아들은 호주에 가서 최초의 미국 오시 룰스 풋볼 선수가 되고 싶어서 한 학기를 남겨두고 바이올라를 중퇴했습니다. 그저 그의 꿈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호주 풋볼을 좋아해요. 그는 6'4", 체지방 4%, 210파운드예요. 그는 무섭죠.

그리고 그가 당신을 때리려고 한다면, 당신은 그의 길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그는, 내가 말했어요, 타일러, 그냥 학위를 마쳐.

아니요, 매년 나이가 한 살씩 더 들어서 호주에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비행기에 탔어요. 아마 공항에서 800달러를 주고 데리러 올 거라는 잠재적인 약속을 받았고, 호주로 날아갔어요. 이 애가 제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는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살 곳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팔에 흉측한 감염이 생겼어요. 마침내 우리는 그와 스카이프 통화를 했고, 그는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의사한테 가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돈이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나는 병원에 갈 수 없어. 내가 네 은행 계좌에 70달러를 넣어두고 병원에 가겠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그를 구해줬지.

하지만 흥미로웠어요. 타일러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가난했어요. 그리고 가끔 노숙자를 보면, 타일러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들이 노숙자인지 모르겠어. 통계적으로 보면 그들 중 절반은 정신 질환 자야 . 왜 그들이, 왜 그가 노숙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 생각에, 네, 저는 그에게 돈을 주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만약 누군가가 호주에서 제 아들이 기타를 치고, 구걸하고, 저녁을 먹을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을 본다면, 저는 그들이 그에게 돈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흥미롭죠. 저는 당신이 모든 사람에게 줄 수는 없다는 걸 알지만, 자비는 그 대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떤 종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딸은 지역 보호소에서 카드를 받았고 맥도날드에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5살이고 돈이 많지 않지만, 그녀가 주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 정말 자비가 필요한 상황을 겪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면 자비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자비는 힘든 일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면 길거리에 나가게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하하하.

자비를 베푸는 것은 매달 교회 협의회에 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것이 ... 아니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회의를 싫어하지만, 회의가 필요하다는 건 알아요.

글쎄요, 자비에 대한 정말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 아, 그런데, 방금 여기에 메모를 남겼어요. 자비의 가장 큰 적은 법률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법률주의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옹호하는 것으로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그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호주에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왜 한 번 학교를 그만두나요... 그는 네 살짜리입니다. 제발요. 학위를 마치고, 졸업생 대표가 되고, 그런 다음 어리석은 짓을 하세요.

아시다시피, 특히 남자들은 고정관념적으로 이런 일에 정말 능숙합니다.

우리는 옳다는 것이 사랑과 자비를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렇죠. 자비로운 자 들은 복이 있고, 그 복은 그들이 자비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은 언제인가? 언제 그들이 자비를 받을 것인가? 그들은 회심할 때 자비를 받는다, 디도서 3:5. 우리의 회심은 자비의 행위이다. 매일, 우리는 자비를 받는다. 이것이 바울의 인사의 힘이다, 디모데전서 1-2장, 은혜, 자비, 그리고 평화.

그리고 다시, 우리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합당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심으로써 매일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심판 때, 우리는 자비를 받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맞나요? 네, 마지막 자비의 행위입니다. 저는 천국이 자비라는 용어로 묘사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바울은 오네시포로에 대해, 그날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무엇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오늘 점심식사 때 매트가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를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 이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구원받고 있으며,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네, 이것은 칼빈주의-아르메니아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구원의 다른 시간적 차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이 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

하지만 이 행복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상호성의 전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호성. 상호성.

왜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나요? 글썄요, 제가 자비를 베풀게 될 테니까요. 사실, 제가 자비를 베풀면, 신께서도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결국 신은 소다 재판기니까요. 여기 소다나 팝이 있나요? 뭐라고 할까요? 소다? 좋아요.

당신은 소다 재판기를 가지고 있고, 저는 북쪽에서 왔기 때문에, 어쨌든 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달러를 넣었고, 그 소다 재판기가 저에게 다이어트 콜라를 빙그레했다는 거죠, 맞죠? 그게 원칙이에요, 우리는 라틴어 구절인 quid pro quo를 사용하죠, 맞죠? 제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줄 것이고, 당신도 저에게 보답으로 무언가를 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처음 볼 때,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quid pro quo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마치, 신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할 거고, 맞아요, 이것들은 모두 신성한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소다 재판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비의 달러를 쏟고, 자비의 소다를 돌려받습니다. 비유를 확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분명히 그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quid pro quo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것과 내가 자비를 받는 것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몇 번 더 칠 것이다. 우리는 6번 용서로 칠 것이다. 글썄, 그래, 우리는 6번으로 칠 것이고, 우리는 7번으로 칠 것이다. 오, 판단하지 말라. 판단받지 않으려면.

당신이 사용하는 척도는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척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상호주의 원칙은 두 번 더 나올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미 제임스.

그걸 은혜로 평가하시나요? 아니면 자비로 평가하시나요? 저는 그런 용어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은혜? 제가 그런 용어로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수요일에 거기에 도착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생각에 축복이 말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신의 자비로 변화되었다면, 나는 필연적으로 자비를 베풀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설교의 즐거움 중 하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방식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우고 칼빈이나 웨슬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알지만, 그것을 말하는 자신의 방식을 찾고 싶어합니다. 설교의 재미 중 하나는 말하는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듣기 시작하면 정말 멋지죠? 제가 개발한 문구는-제 말이 맞나요-사람들을 변화시켜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의 필요성에 대한 제 교리입니다. 인내는 새로운 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변화되었다면, 다시 말해, 당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돌 같은 마음을 꺼내시고, 부드럽고, 가단하고, 형성 가능한 육신의 마음을 주셨으며, 성령의 영향을 받았고, 당신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고,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초자연적이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박해가 오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넓은 길로 가고, 우리는 좁은 길로 가고, 우리가 변화했기 때문에 그 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3장이나 4장, 아니면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왜 다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판단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알겠어요? 사람들을 바꾸고 삶을 바꾸세요. 그래서 저는 개종할 때 자비를 베풀었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저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초자연적이지만 자연스러운 결과 중 하나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자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누구인지에 대한 구성의 일부이고, 그것이 아무리 불완전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은 자비가 없었던 변화된 마음의 자연스러운 유출일 뿐입니다. 저는 불완전한 사람들을 자비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상호주의 교리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자비를 경험했다면 자비를 베풀어질 것입니다. *quid pro quo*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 이 원리의 무서운 부분이 있고, 다시 한번 용서에서 정말 무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만약 누군가가 자비를 베풀기를 거부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상호주의 원칙이 사실이라면, 만약 우리가 문에서 변화된다면,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는 자비를 베풀기 시작할 수 있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만약 어떤 사람이 결코, 만약 어떤 사람이 확고하게 포기한다면, 저는 여기의 사건, 저기의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자비를 베풀기를 거부하는 생활 방식을 채택한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자비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이 행복의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심할 때 자비를 베풀어진다는 생각과 자비를 베풀는 우리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자비, 정직, 판단에 대한 진술이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것이 마태복음입니다. 18살이신가요? 18살이에요.

자비로운 종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의 주요 구절을 읽어서 이해하도록 하죠. 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서, 악한 종아, 네가 간청해서 빚을 다 탕감해 주었으니, 내가 네 동료 종에게 자비를 베풀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내가 네게 자비를 베풀 것처럼 너도 네 동료 종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느냐? 주인은 이 경우 잘못 가정했지만, 자비를 경험하면 너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주인은 화가 나서 그를 감옥 관리인에게 넘겨서 그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고문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나 자매를 용서하지 않는 한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각자를 대하시는 방식이다. 정말?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심판에서 생명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했다.

글쎄요, 맥락, 맥락, 맥락, 맞죠? 이것이 내 천상의 아버지께서 여러분 각자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형제나 자매를 용서하지 않는 한요. 그러니 용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말할 것은, 진정으로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는 아니고,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용서받거나 변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전에 용서하지 않았던 곳에서 용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내일 말씀드릴 텐데, 만약 사람들이 장기간 용서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리고 저는, 알다시피, 학대와 깊은 고통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조심하고 싶지만, 용서받는 것에는 당신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아무리 불완전하더라도요.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또한 우리가 매우 자주 마주치는 또 다른 역학은 사람들이 용서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이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너무 딱딱해져서 없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마크가 제기한 요점은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비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어봤지만, 왜 사람들은 자비를 받지 않을까요? 그들은 자비를 받고 싶어하지 않나요? 오만함과 자존심 때문인가요? 네.

네, 많은 아이들이 그것을 배웁니다. 네. 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용서 능력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해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정말 나쁜 죄나 반복적인 죄입니다. 신이 어떻게 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신이 어떻게 이걸 다시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짐? 다른 짐? 다른 짐.

네. 네. 맞아요.

음-음. 네. 네, 제가 질문을 표현한 방식은 실제로 당신의 마음속에 그 질문을 던지려는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질문인가요? 그리고 잇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저는 판사가 아닙니다.

저는 심사하는 사람의 직무 설명을 읽었는데, 저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신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과일 검사관이 아니에요. 그건 제 소명이 아니에요.

사실, 마태복음 7:1에 대한 제 입장은 판단하는 것, 판단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확신의 영역에 더 많이 접근하는 경향이 있고, 교회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들이 자비를 베풀기를 거부하고, 용서를 베풀기를 거부하고, 삶에서 계속되는 죄를 편안하게 여긴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먼 말은, 당신이 문에서

변화되었을 때, 이것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문을 통과했다고 정말 확신합니까? 이제, 이것은 당신의 결정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요한 1서에 확신을 위한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비를 보이지 않는 데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당신을 괴롭히나요? 당신이 당신의 태도에 완벽하게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당신을 괴롭히나요? 그리고 저는 그 이상 사람들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당신의 요점으로 돌아가서, 당신이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당신이 왕국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그것들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라면, 그는 계속해서 통치하고 불완전하게 순환하면서 더 나아지고, 이런 모든 종류의 좋은 웨슬리적인 것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밥, 당신은 그것을 좋아했습니까? 좋은 웨슬리적인 것들

네, 거절한다면-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어서 사람들이 왜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지 말하는 데 조심하고 싶습니다. 저는 2주 후에 휴스턴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서 연설할 예정이고, 그들은 저에게 샘플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250명의 여성 리더.

그리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받은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제 남편이 우리 딸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장로들에게 갔습니다.

그들은 그게 내 잘못이라고 했고 내가 제출해야 한다고 했어요. 좋아요, 제가 이 세상에는 많은 고통이 있다고 말했을 때-여러분은 알잖아요. 여러분은 참호에 있어요.

이런 종류의 것들을 보죠. 그럼, 왜 사람은 자비롭지 않을까요? 제 답변의 일부는 그냥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장로들이 그게 네 잘못이라고, 네가 충분히 복종적이지 않았거나 충분히 예쁘지 않았다고 말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말해줘.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저 들려주기를 원할 뿐이야. 그리고 그것이 치유를 향한 가장 큰 단계인데, 그것은 당신이 고통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지만, 당신의 말이 들려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야.

그럼 왜 사람들은-저는, 몇 년 전에 지금처럼 낙태하지 않았을 때 낙태 를 했던 한 여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 전체는 그녀가 한 일 때문에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죄책감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듣고, 말하고, 고백을 받고, 진실의 빛을 가져오고, 그것을 빛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당신이 그것을 한 후에,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좋아, 용서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하지만 그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왕국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면, 이런 종류의 일들은 그분의 주권 아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주권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내가 너를 바꾸었다. 너는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지적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여기서 제 노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없거나 베풀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비를 베푸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경고가 아니라, 자비를 베풀고 싶어하지 않고 괜찮은 사람들을 위한 경고입니다. 좋아요, 이들은 모든 투쟁에 연루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13에 따르면,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자비가 없습니다. 스토틀는 47페이지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자비롭지 않다면 우리의 죄를 회개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 생각엔 정말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죄에 무자비하다면 죄를 회개했다고 주장할 수 없어요. 아시다시피, 제 삶 속의 불규칙한 사람들 중 일부에 대한 저의 일부이고, 다행히도 저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요한 1서에서 분명한 답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점점 더, 점점 더 불안정하게 사랑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리고 이 모든 상호주의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렵고,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정말로 그것과 씨름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이런 일들을 처리한 방식이에요. 네, 하지만 신은 교회 교사를 주셨고,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제가 해야 했던 일, 사실 이걸 생각하게 만든 건 몇몇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깊이 미워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는 그들을 어떻게 대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면, 나는 그들을 한 가지 방식으로 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대할 것입니다.

나는 훨씬 더 그들의 얼굴에 다가갈 거야-솔직히 말해서, 훨씬 더 성경을 휘두르는 사람이 될 거야. 알다시피, 내가 당신에게 세 번이나 갔잖아.

나는 당신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내가 당신을 어떻게 다치게 했는지 말해 달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제 말은, 그들이 신자라면, 저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좀 더 편안합니다. 그들이 신자가 아니라면, 그런 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자 그대로 이 축복에 대해 고민하던 저로 인해 시작된 신학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대해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을 훨씬 더 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들은 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둬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은 나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제가...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저는 판사가 아닙니다. 저는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신자라고 가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안전한 길을 택하고 그들을 마치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하듯 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성경을 주입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 결정이야. 알았어. 글썄,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해줄게.

그리고 주기도문 후 용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모든 것이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속성해 왔는지 봅시다.

좋아요. 여섯 번째 복, 8절.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순수함의 기본 의미는 더럽혀지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흠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희석되지 않은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순수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순수하게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뉘지 않습니다. 그 중 일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일부는 죄를 위한 것입니다.

좋아요, 희석되지 않았어요. 순수해요. 전적으로 그분께 헌신했어요.

응. 카타르시스. 응, 응.

그리스어 단어는 카타로이 입니다 . 그래서, 만약 당신이 카타르시스와 그런 종류의 단어를 얻는다면, 저는 구약성경에서 구절을 찾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 성경은 어디 있지? 여기 있어.

어, 시편 24편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누가 여호와와 산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손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 우상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거짓 신에게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고 그들의 구세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을 것입니다.

좋아요, 그것은 순수함에 대한 훌륭한 구약성경 구절입니다. 순금이 희석되지 않은 것처럼, 그것은 다른 원소와 섞이지 않고, 순수한 마음은 도덕적, 영적 더러움과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헌신에 있어서 일심이고, 충성심에 있어서 분열되지 않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전혀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인생이 여정이고 우리가 천천히 순수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나요? 하지만 그것은 마음의 순수함입니다. 그러니 물론

강조점은 우리가 걸모습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아닙니다. 주로 우리가 내면에서 어떤 사람인지입니다.

오, 시편 86:11편. 주님,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그러면 당신의 진리 안에서 걸을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나에게 분열되지 않은 마음을 주소서.

또 다른 좋은 구약성경의 유사점. 보세요, 모든 현대판의 바리새인들이죠, 맞죠? 저는 종교인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교회인이라는 문구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그 단어들에 대해 온갖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바리새인과 모든 종교인들은 겉으로 보기에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쇼를 벌이고 사람들의 칭찬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잔을 씻는 것, 향료의 십일조를 바치는 것, 토요일에 몇 걸음을 걷는가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리새주의죠, 맞죠? 그리고 이들은 외적인 종교적 행위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생각하는데, 이게 합법주의의 본질이죠, 이들은 특정한 일을 함으로써 신의 은총을 구한다고 생각하죠, 맞죠? 우리 모두는 우리 삶에서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죠, 맞죠? 이들은 쇼를 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많은 돈을 줄 때마다 당신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은 교회 문이 열려 있을 때 거기에 있습니다. 빈칸을 채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풍토병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마도 항상 사실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항상 모든 강조점이 외부와 그들이 하는 일에 있었던 사람들의 집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6장에서 그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는 그들이 얻는 것은 인간의 칭찬뿐이고, 그 외의 것은 없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지만, 오히려

축복은 마음의 순수함에 있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중국에 대한 흥미로운 토론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오와 그의 권력 장악 이후의 혼란과 일어난 모든 일들과 함께, 고정관념적으로, 중국 교회에서 진짜 도전 중 하나는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존재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저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그것이 마오가 그에게 주입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고, 한 명은 상하이에서 일하고 다른 한 명은 베이징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우면 반란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란을 만들고 가족을 분리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우 전형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당신이 하는 일이지, 당신이 누구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좌절해서 직장에 간다. 아내는 좌절해서 아이를 통제하려고 한다. 매우 조종적이다.

아이가 가는데, 저는 한 남자를 특별히 생각하는데, 미국에 가서 기독교인이 되고 돌아와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런 모든 통제하고 지배하는 영향력이 있는 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당신은 그 상황에서 성격 문제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패러다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패러다임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로빈과 내가 갈 때 로빈은 항상 나와 함께 가요. 내가 아내를 데려올 만큼 아내를 존경한다는 사실이 내가

하는 말보다 더 크게 들리거든요. 한 여자가 내 아내에게 말했듯이, 당신 남편이 당신을 정말 존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르칠 때 그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는, 응, 그는 정말 그래. 그는, 음, 그는 사적으로 어떤 사람일까? 그녀는 내가 똑같은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사적으로 그녀를 존중할 거라는 생각도 못 했어. 다시 말하지만, 이건 그저 저쪽 교회가 겪는 도전의 일부일 뿐이야.

이제, 여기서 제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랑은 순종으로 정의됩니다. 다시 한 번, 고정관념적인 중국 기독교인에게,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순종입니다. 글썄요, 저는 신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을 사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었습니다. 사랑이 뭐예요? 그리고 저는 그들의 본능적인 대답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글썄요, 그는 우리에게 적에게 복종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겠죠? 오, 맞아요.

그럼,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사용해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쁘게 상대방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의 순수성에 대해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이 하는 일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말하고 설명할 때, 제가 가장 최근에 한 예는 중국 교회입니다.

저는 가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그게 당신이 하는 일이에요. 당신이 하는 일이 우리 문화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정의해요. 그렇죠.

질문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누군가를 알게 되고 정말 자연스럽죠. 날씨는 어때요?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라고 말하면서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바로 행동 단계가 아닌 존재 단계로 간다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모르겠어. 모르겠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축복을 받는 순수함은 마음의  
순수함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듣기 힘든 말인데, 아마 모든  
문화권에서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특히 남성들은 우리가 하는 일  
, 우리가 이룬 것에서 중요성에 대한 감각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보다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더 신경을 씁니다.  
이게 제 여정의 일부예요.

저는 그냥,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제 말은, 제 투쟁은 매일 아침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냥, 저는 62살이고, 20살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아침에 여전히 큰 투쟁을 겪고 있습니다. 마치, 저는 이 교훈을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신이시여, 저는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읽을 시간이 없어요, 당신을 읽고 이야기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당신에 대한 또 다른 책을 써야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오리스트 분사에  
대한 이 장을 마쳐야 해요, 알죠?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는, 그냥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입니다.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앉아서 관계를 즐기고 신이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확신시키는 것뿐이다. 나는 지금 당장 죽을 수  
있고 신은 내 다음 책을 마무리할 사람을 일으킬 수 있다. 아무도 그  
차이를 알지 못할 것이다.

신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그는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그는 당신을  
원해.

그는 나를 원해요. 제 아내가 주로 제가 그녀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녀는 제가 그녀와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쓰고, 저는 정말 운이 좋아요.

저는 집에서 일하게 되고 사실상 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아침 커피를 마시며 2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커피를 많이 마십니다.

우리는 이야기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공유합니다. 저녁에는 보통 5시쯤에 일을 멈추고 현관에 앉아 뭔가 마십니다. 로빈이 가장 좋아하는 건 칩과 과카몰리라서 저는 이틀에 한 번씩 저녁에 칩과 과카몰리를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우리의 별명은 현관 사람들인데, 우리는 항상 현관에 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길가에 집을 사서 현관에 앉아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은 모두 의도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게 저예요. 로빈이 제가 되는 법과 하지 않는 법을 배우도록 돕고 있어요. 좋아요. 제가 여기서 주제와 정말 어긋나지만, 이건 마음의 순수함이에요.

이건 가장 안쪽의 움푹 들어간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축복은 마음이 분열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마음이 도덕적 더러움으로 더럽혀지지 않았고, 축복이 그들에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오, 예. 사실, 예.

만약, 내가 신을 보고 싶고 신을 보는 행위가 힘을 주는 행위라면. 네. 알다시피, 우리는 성경적 훈련에 대한 일련의 세미나를 가지고 있고 그 뒤에 있는 아이디어는 모든 장로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빈틈을 메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ADF가 와서 모든 장로가 교회와 법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음으로 촬영할 것은 포르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제 생각에, 그것에 맞는 상담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담자 중 한 명도 거기에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르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감금적인지 보는 것은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제가 상담받는 사람을 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유에서 벗어나는 데서 오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제가 모든 것을 다 마쳤을 때, 저는 로빈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소방 호스를 가져와서 집을 씻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를 가두었던 것이 무엇인지 듣는 건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세미나를 촬영하고, 집을 위해 기도하고, 세미나를 촬영하고, 그런 다음 물을 뿌려 없애는 거예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서 험담을 다루는 법을 아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게 우리의 대응이어야 해요.

교회에 가십보다 더 파괴적인 것이 없다면, 저는 그것을 교회의 모국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대신 비난하고 폄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알다시피, 저에게 포르노는 궁극적인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십은 궁극적인 죄입니다. 하지만 좋은 입장에 있는 죄입니다.

네, 네. 7-1에 도달하면 그 문구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좋아요.

멋진 이야기네요. 네, 행복의 말씀에는 뭔가 매력적인 게 있죠, 그렇죠? 그 일부를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어요. 글썄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반면에 저는 정말 신을 항상 명확하게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 분열된 마음이 신에 대한 제 시야를 흐리게 한다면, 저는 그저 그를 점점 더, 점점 더 명확하게 보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동기가 되고, 마음을 정화하는 동기가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행 여행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순수함을 향한 여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단어가 말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다면, 적어도 마음의 순수함을 향한 여정에 있지 않다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저는 행복을 다른 식으로 읽는 방법을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를 볼 수 있는데, 그들이 그를 알 수 있다는 의미에서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를 볼 때의 모습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제가 성경에서 독특한 사건을 찾아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반복될 특정한 것들이 있죠? 영원토록,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저는 계속해서 믿음, 소망,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일은 없지, 그렇지? 하지만 영원 속에서 단 한 번만 일어날 특정한 사건들이 있어. 그리고 나는 그 사건들을 기대해. 나는 고통에 관해서는 정말 겁쟁이야.

저는 통증 역치가 없습니다. 제 아내는 절대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얼마 전 넘어져서 머리 뒤쪽에 스테이플러 세 개를 박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아프다고 한 적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건 제 아내일 뿐이지만, 모든 게 아프죠.

하지만 내가 그녀에게 말했어, 내가 말했어, 내가 죽어가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긴다면, 모르핀을 주지 마. 이제 나는 폐의 꼭대기에서 모르핀을 달라고 소리칠 거야, 하지만 나는 정신을 차리고 천국에 가고 싶어,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한 번만 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한 번만 볼 수 있어.

그리고 나는 그것이 약으로 흐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분명히, 내가 모르핀을 먹었다면, 그것이 모두 제거될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맞아요, 저는 눈을 뜨고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싶어요. 그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에게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3:2와 같은 이 구절들이 저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존재하고, 우리가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을 것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를 있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볼 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음, 알다시피, 제 질문 중 하나는, 당신이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죄의 본성은 언제 제거되나요? 우리가 죽을 때인가요 아니면 심판을 더할 때인가요? 성경은 실제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다시 말해서, 중간 상태에서, 우리가 육체가 없는 영일 때,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질까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간 단계에서 무엇을 할지 아십니까? 몸에 행동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그게 싫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혼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면, 저는 제 아내를 만질 수 없을 테니까요. 저는 진짜이고, 만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음, 그리고 저는 만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겁이 나요. 바울도 좀 겁이 났을 거예요 , 맞죠?  
고린도후서 5장. 그는 천막 없는 몸, 천막 없는 영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생각엔 우리는 사과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낼 거예요.

중간 단계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상처 준  
사람이나 우리를 상처 준 사람을 찾아서 극복하는 거죠. 음, 하지만  
사과하는 일도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미국인, 오, 아프리카, 이 거대한 사과를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교회는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먹일 만큼의 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40,000명의 아이들이 굶주린다고 말하지만, 미국 교회가 돈을 써야  
할 곳에 쓴다면 그 아이들은 먹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그 특정 동전의 다른 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오, 맞아요.

하지만 보복하고 분노하는 경향이 중간 단계에서 나에게 영향을 미칠지  
알고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근거로, 제가 죽고 예수님을 뵈는 중간 상태로 옮겨갈 때,  
그가 말하는 이 변화가 제 죄스러운 본성을 제거하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마음이 마침내, 처음으로, 완전히 순수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것이 제 죽음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죽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를 볼 때, 그가 있는 그대로, 완전한 시야로 볼 때,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는 그와 같을 것입니다.

이제, 단점은,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적해야겠지만,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설명하고 싶어하는 대로, 순수함을

향한 길에 있는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이 시점에서 거룩함에 대한 구절로 갑니다. 거룩함처럼, 히브리서 12, 14.

거룩함을 위해 노력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웨슬리안처럼 들린다. 거룩함을 위해 노력하라.

이것은 우리가 개종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을 위해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경험적입니다. 이것은 삶입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거룩함이 없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의 순수함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회심할 때 거룩해졌지만, 우리의 경험상, 우리는 순수함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거룩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들은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은 투쟁이며, 행복의 역전이 가장 큰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생각에, 누가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한 진정한 증거입니다.

칼빈주의-아르미니우스주의 논쟁이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제 말은, 남침례교가 이 문제에 대해 완전히 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이 문제가 정말 뜨겁고, 여전히 매우 뜨거운 주제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제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볼 때마다, 잘못된 질문이 제기되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잘못된 질문은, 기독교인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 너무 깊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것을 믿고 저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고. 흠.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네요.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일까요? 글썄요, 그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압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다고 믿는다면, 만약 당신이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다고 고백한다면, 로마서 10장을 알죠.

네, 저는 그 구절들을 알지만, 저는 여전히 복음서의 언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쨌든, 나는 그 죽은 말을 충분히 때렸다고 생각한다. 하나 더. 아니, 사실은 두 개 더.

오 예, 이건 쉬운 것들, 평화를 이루는 자와 박해입니다. 음, 제가 행복에 대해 다 이해할 수 있는지 봅시다. 그리고 잠깐 쉬겠습니다. 행복 번호 7은 9절에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불릴 것임이요, 여기, 여러분의 번역은 다를 것입니다. 그리스어로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NIV에는 신의 자녀가 있습니다. 당신은 신의 아들들이나 신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이것은 어떤 타고난 기질을 가진 사람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다루어야 할 문제를 다룰 용기가 없는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스토틀가 이 부분에서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로 세계 평화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세계적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지만, 저는 그것이 주로 논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평화 조성자입니까? 제 정의에는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입니다. 맞죠? 로마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경험하지만 죄의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입니다. 좋아요, 쉽죠.

둘째, 평화 조성자는 평화에 대한 내적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질을 그렇게 바꾸신 것입니다. 저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샬롬의 전부가 맞죠? 샬롬은 단순히 적대감을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구약성서의 평화 개념은 내면의 삶 전체의 평화, 내면의 평온함, 조화, 그리고 온전함입니다. 당신의 내면은 다툼, 불화, 분노로 특징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두 번째로 평화의 내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실제로 평화를 만드는 외적인 행동을 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려운 점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화해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화해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시작됩니다.

형제 자매들이 함께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목사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새로운 교회에 갔는데, 불화로 가득 차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타당했고, 그들은 서로를 때렸고, 마침내 그들은... 평화유지군, 그 조직에 대해 알고 있나요? 매우 중요합니다. 모르신다면, 좋아요. 그들은 그들을 평화유지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했고, 그것은 성공의 위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무엇인지, 해결책이 무엇인지 확립했습니다. 그들은 회의를 했고 평화유지군이 하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

그리고 교회는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평화주의자들이 떠난 다음 일요일, 제 친구가 설교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주요 불만자 중 한 명이 교회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항상 울게 됩니다. 제 관계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싶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는 설교가 시작되기 직전에 뛰어올라서 말했습니다. 말할 게 있어요. 제 친구가 말했습니다. 오, 젠장.

진심이야? 우리는 방금 이 문제를 해결했어. 그는 알았어라고 했고, 그는 교회 반대편에 앉아 있는 남자에게 돌아서서 말했어... 우리는 그를 짐이라고 부르겠어.

그의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짐,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목사 친구가 지금 이 순간 이걸 하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존이에요. 저쪽 남자가 "24년 동안 당신을 미워했어요. 미안해요."라고 말했어요.

용서해 주시겠어요? 멋지지 않나요? 그게 평화 만들기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깨진 관계를 화해시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것은 밖으로 확장되고, 공동체는 화해하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있는데, 좀 미친 짓이에요. 주님이 그에게 많은 일을 하라고 하시고, 그는 말씀하신 대로 해요.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움직이라고 하셨지, 어디로 움직여야 하는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는 U-Haul을 타고 동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는 내가 어디로 가는 거지?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야 할 때 말해줄게요. 알았어요.

그들은 집을 팔고 모든 것을 U-Haul에 싣습니다. 아내는 "좋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쪽으로 향했고, 그 중간쯤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을로 갈 거예요."

그는 말했다, 왜? 거기에 도착하면 알게 될 거야. 그것은 목사들이 서로를 미워할 정도로 심한 인종적 증오의 안식처였고, 교회들이 서로를 미워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들은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제 친구는 화해에 정말 능숙해요. 그래서 5년 동안 이 지역에서 살면서 목사님들과 함께 일했어요. 지금은 모두 절친이에요.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의 교회는 이 모든 기능을 함께 수행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이 미친 작은 마을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것은 교회에서 깨진 관계를 화해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 사회로 확장되고, 궁극적으로는 세상으로 확장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 친구가 정신병자인지 아니면 신이 그에게 정기적으로 말씀하시는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그의 선물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신은 매우 직접적인 지시로 거의 매일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매우 직설적입니다. 집회, 이런 종류의 것을 좋아하시죠? 그는 그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만날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그 사람이 자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차로에 언제 도착해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제 말은, 그냥, 그는 2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경청합니다. 주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면, 그는 그저 평소의 일을 합니다. 그게 뭐든요.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하라고 하시고, 그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에게 한 번 물었습니다. 왜 주님은 더 자주 그렇게 하지 않으시나요? 그러자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말씀하시려면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차피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평화를 이루는 일이 거의 평화로운 일이 아니라는 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당신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한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과정이 거의 평화로운 활동이 아니라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마음에 평화를 찾으려면 마음의 분노나 악의, 원망, 또는 우리 삶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들을 공격적으로 공격해야 합니다. 칼을 찔러서 뽑아내야 하지 않나요? 평화롭게 마음을 공격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룰 때, 그것은 거의 평화로운 경험이 아닙니다. 저는 잘 맞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과 맞서는 데 정말, 정말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와 마주할 때, 제 인생에서 두 번이나 마주했을 때, 제 성격과 너무 어긋나서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만드는 것은 평화로운 활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화로운 활동이 아니죠. 하지만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남성적 의미의 아들이 아니라요.

그것은 상속 언어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완전한 구성원이 될 것이고, 강조점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식이에요. 우리는 그의 아들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모습을 따라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는 평화주의자고, 우리도 그래요. 제 자식 중 한 명이 입양했어요.

저는 항상 어느 것이었는지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어렸을 때 항상 추측하곤 했습니다. 글썄요, 어느 것이 입양된 것일까요? 저는 모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잊어버립니다.

누가 입양아라고 생각해? 지금까지 입양아를 고른 적이 없다는 걸 알아? 절대. 보통 내 딸을 고르거든. 입양아가 아니야. 이상해. 그녀를 보면 엄마의 복제인간이거든.

그녀와 로빈은 정확히 닮았어. 그녀는 내 성격이지만, 그녀는 정확히 닮았어... 어떻게 크리스틴을 입양아로 뽑을 수 있었어? 그녀를 미치게 만들어. 하지만 입양아는 아무도 추측할 수 없어.

왜 그럴까? 나랑 똑같아 보여. 나랑 똑같아. 그는 내... 그는 나랑 생각이 비슷해.

그는 나처럼 행동하고, 나처럼 보이고, 내 아들 이에요 .

저는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입양 언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입양아예요. 우리는 그가 어렸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우리는 모두 신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어요.

우리 중 누구도 자연스럽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또한 생물학적으로 우리 가족에 입양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정말 부자라면 그를 부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하려면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회심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로 입양되었습니다(에베소서 1 :5). 인생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같이 됩니다(이 구절 참조). 심판 때, 그는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고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냥 평화 조성자가 되기로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에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황금 사슬의 시작에서 시작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오만하고 교만하다면 평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유하지 않다면, 자신이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더 교활하고... 표현이 뭐였을까요? Slicker than... 당신은 자신이 더 교활하고... Slicker than... 하지만 사실 당신은 종이 접시 위의 차가운 컵물입니다. 그게 표현의 후반부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더 교활하고 컵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신은 종이 접시 위의 차가운 컵물입니다.

어쨌든, 왜 내가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알다시피, 내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됐어, 밥. 미안해.

당신은 영적 타락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당신은 아빠처럼 되고 싶어할 것입니다. 당신은 아빠처럼 보이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평화를 만들고 싶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영상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평화를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렵죠, 그렇지 않나요? 저처럼 그냥 존재하지 않는 척하고 사라지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물론, 그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당신은 그럴 수 없습니다. 제 말은, 제가 목회할 때 이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아니, 가십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웠던 건 내가 그것에 맞서야 한다는 걸 알았을 때였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평화를 만드는 건 힘든 일이에요.

한 직원이 들어와서, "저 직원 싫어요. 저를 싫어해요."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함께 일하기를 거부해요.

그러니 선택해야 합니다. 글썄요, 돌이켜보면 둘 다 해고했어야 했습니다. 평화를 이루려고 노력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글썄요, 저는 그랬어요. 네. 네.

교회 징계를 어떻게 처리했나요? 저는 회사 차원에서 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마태복음 18장 불만 처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내 저는 그냥... 들어야만 했습니다.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게 도움이 되기도 했어요. 해결해야 할 갈등이 생길 때면, 저는 보통 장로들에게 가서, 당신들 중 한 명이나 두 명이 저와 함께 와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 혼자서는 이걸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건 성경적이예요.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저는 그냥 그러지 않았어요. 제 피부가 너무 얇거든요. 앉아서 당신과 마주할 용기가 없어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게 제 방식이었고, 그렇게 했어요. 다행히도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네. 글썄요, 불편하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교회 규율에 대한 입장 문서를 썼을 때, 문제는 20명이 넘는 교회가 있다면 교회 규율은 결코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징계를 좋아한다는 평판이 있는 교회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날 우연히 우리는 교회 징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간통을 회개하지 않는 여자에 대해 말했고, 우리는 그녀와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글썄요, 제 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좋아, 남편은 뭐지? 그의 책임은 뭐지? 여성은 그냥 집어서 간통을  
 저지르지 않고 간통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가 그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그녀를 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도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나,  
 뭐랄까요, 그냥 교회 규율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경의, 1세기  
 교회는 집 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때까지 교회를 위한  
 건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10년마다 5배로 늘어났습니다. 교회에 큰 건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가정 교회 모델에서 벗어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들을 징계하여 나머지가 두려움에 서게 하라, 맞지? 디모데전서 4:5,  
 디모데전서 5. 내가 너를 모르면, 너는 두려움에 서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어쨌든. 잠깐 쉬자.

우리는 돌아와서 박해받는 자들과 소금과 빛으로 봉사할 것입니다.